

미드라쉬의 성서교수학적 함의와 적용*

김인혜(장로회신학대학교/박사과정)**

dpmk7@puts.ac.kr

고원석(장로회신학대학교/교수)

wskoh87@puts.ac.kr

한글 초록

본 논문은 시대적 상황 속에서 성서교육에 대한 새 패러다임을 모색하며 유대 성서해석의 옛 전통인 미드라쉬로 시선을 돌린다. 이는 오늘날의 상황 속에서 현재의 성서교육이 의미 있고 효과적인 교육이 되기 위한 준거틀을 삼고자 함이다. 유대 랍비들은 성경을 대할 때 특정한 해석지침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러한 해석지침은 미드라쉬와 함께 전수되었으며, 성경을 해석하는 태도를 형성하였다. 미드라쉬는 문집이나 강론 모음집, 랍비 문학의 특정 장르, 공개적으로 전달되는 성경 주석과 설교, 그리고 성경의 특정 책에 대한 주석 행위 등을 포함하는 상당히 넓은 의미지평을 가지고 있다. 랍비들의 미드라쉬 해석지침은 성경이 들음과 배움의 자세를 요청하고 탐구의 자세를 갖게 한다는 것, 여백을 통한 탐구를 하고자 하며 상호존중과 상호소통의 중요성을 알게 하고, 오늘 나에게 도전하는 말씀이라는 성서교수학적 의미를 발견하게 한다. 한편 미드라쉬를 성서교수학적으로 적용한 비블리오드라마는 미드라쉬의 해석지침과 많은 공유점을 갖고 있다. 비블리오드라마는 성경과 참여자의 대면을 통해 서로 인격적인 만남과 성찰을 일으킴으로써 서로를 새로운 모습으로 발견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리하여 비블리오드라마는 성경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고 인식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해와 인식을 바탕으로 참여자의 삶에 도전하고 새로

* 이 논문은 2021년도 장로회신학대학교의 학술연구지원금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 제1저자: 김인혜, 교신저자: 고원석

은 관점으로 참여자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함으로써 새로운 정체성 형성을 도모한다.

《 주제어 》

미드라쉬, 성서교수학, 성서교육의 패러다임, 비블리오편역사, 기독교교육

I. 들어가는 말

오늘날 여전히 “성경이 기독교교육의 중심에 서 있어야 하는가”? 지금으로부터 약 50년 전 독일의 기독교교육학자 카우프만(Kaufmann, 1969, 33)은 독일 젊은이들로부터 성경의 의미와 가치가 급격하게 상실되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며 이렇게 질문을 던졌다. 사실 카우프만은 젊은이들의 삶과 현실의 문제는 외면한 채 성경의 주석과 내용전달에 주목하고 있는 당시 성서교육의 현실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젊은이들의 삶과 경험을 끌어안 수 있는 성서교육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청했던 것이다(고원석, 2013, 294-295). 카우프만이 독일 기독교교육 현장을 향해 던졌던 질문은 오늘의 한국 기독교교육 상황을 향해서도 유의미한 질문이다. 기독교교육의 중심에 있는 현재의 성서교육은 오늘날 젊은이들에게 얼마나 의미 있고 효과적인 교육이 되고 있는가?

본 논문은 시대적 상황 속에서 기독교교육 및 성서교육에 대한 새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연구들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고우수, 2000; 김도일, 2014; 김경준, 2018; 박상진, 2009; 임창호, 2018; 조철현, 2015 등). 연구자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기 위해 유대 성서해석의 옛 전통인 미드라쉬로 시선을 돌려보고자 한다. 유대전통 속에서 미드라쉬는 중요한 성서해석 방식에 속한다. 성서학에서 최근 역사비평적 해석방식의 모순과 한계를 지적하며 그 대안적 해석으로 미드라쉬를 제시된 바 있다(이민규, 2021). 또 미드

라쉬 연구의 권위자인 노이즈너(Neusner, 1987, 105; 1990, 5)는 유대 랍비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에 접근하기 위해 관심을 기울였던 “미드라쉬가 왜 현재 우리에게 중요한가”라는 물음을 던지면서 미드라쉬를 유대교와 기독교의 미래 신학을 위한 방법론으로 제안했다. 아울러 미드라쉬의 성서 해석원칙 및 탐구방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현대 성서교육의 주요한 패러다임 중 하나인 비블리오드라마 이론으로 제시하고 있는 피젤(Pitzele, 2016)의 시도는 본 연구를 시작하게 한 직접적인 자극제가 되었다.

그러나 기독교교육의 관점에서 미드라쉬에 대한 연구는 그리 활발한 편은 아니다. 유대 종교교육학의 관점에서 길리스(Gillis, 2008)는 미드라쉬적 해석이 특정한 지식과 사고방식의 결과물이라는 전제를 갖고, 미드라쉬가 갖는 교육적 잠재력과 미드라쉬를 통한 인간 본성의 깊은 이해를 밝혀내고자 인식론적 접근을 시도했다. 시겔(Sigel, 2010)은 미드라쉬가 유대인 전통과 정체성에 대한 충실한 유대감을 조장하는 고대 종교문학의 풍부한 장르임을 강조하며 성경의 관점과 가치에 대한 깊은 이해력 훈련을 위해 초등학교의 미드라쉬적 문해교육을 주장하였다. 한편 국내 기독교교육영역에서 미드라쉬는 실천적인 제안의 사례 정도로 소개되고 있다. 김영래(2019)는 성경이 히브리 역사와 문화에 기초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히브리적 사고를 잃고 있음을 발견하며, 히브리적 사고에 기초한 성경 스토리텔링으로의 대표적 사례로 미드라쉬를 언급하여 기독교교육적 의미를 강조했다. 이주아(2021)는 한국교회 성평등을 위한 내재적 교육과정을 분석하면서 여성주의 기독교교육적 방안을 제안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의 대안으로 여성주의 미드라쉬를 제안했다. 성경 속 여성의 이야기를 여성의 관점과 경험을 통해 다시 써보는 작업을 통해 한국교회 안에서의 여성들의 자리를 되찾아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 갈 것을 제시했다. 이 외에도 황현영(2019)은 통합적 기독교상담모형으로 비블리오드라마를 제시하면서 비블리오드라마의 기원과 발전의 역사를 통해 미드라쉬적 성서해석을 언급했다.

본 연구는 이상의 연구들의 연속선 상에서 성서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의 이론적 근거로 '미드라쉬'를 살펴보고, 미드라쉬의 성서교수학적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II장에서 미드라쉬의 의미와 역사, 해석방법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III장에서는 미드라쉬의 성서해석학적 관점이 가지고 있는 성서교수학적 함의를 살펴본 후 미드라쉬의 원칙을 성서교수학적으로 적용한 비블리오드라마가 가지고 있는 미드라쉬와의 연관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연구자는 현재의 성서교육이 의미 있고 효과적인 교육이 되기 위한 이론적 근거로서 미드라쉬가 성서교육의 미래를 향한 기독교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 성경과 우리의 삶이 긴밀히 연결할 수 있도록 하나의 성서해석학적 실마리를 제공해 주리라 기대한다. 또 랍비들이 성경을 대하는 태도에 주목함으로써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대한 전통과 애정을 회복하고 유지할 수 있는 교육적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II. 유대 성서해석의 전승 속에서 미드라쉬

1. 미드라쉬의 의미

유대 랍비 전통은 토라를 해석하고자 하는 방법을 '파르데스'(PaRDeS/פרדס)라고 부른다. 파르데스는 과수원(참조: 전 2:5)을 뜻하는 단어로, 낙원을 의미하는 파라다이스(Paradise)의 어원이기도 하다. 이 파르데스가 유대의 토라 해석방법과 관계가 있는 이유는 파르데스를 이루고 있는 네 개의 자음이 유대 전통 속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네 방법의 첫 글자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고원석, 2018, 210; 유윤종, 2004, 71). 첫 번째 페샤트(פשט=Peshat)는 성경 본문에 대한 언어적 분석을 통해 문자적 의미를 탐구한다. 두 번째 레메즈(מג=Remez)는 성경의 문자적 의미 뒤에 감추어진 암시적, 상징적 의미를 찾아내고자 한다. 세 번째 데라쉬(דרש=Derash)는 성경 본문이 충분히 설명하고 있지 않은 부분을 설명하고 밝혀내려는 시도다. 마

지막으로 소드(סוד=Sod)는 영감이나 계시를 통해 성경 본문의 신비적 의미를 밝혀내려고 한다. 이처럼 사중적 차원의 성서해석방법의 첫 번째 글자를 따서 ‘파르테스(과수원)’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중적 차원에서 파악해 가는 것이 다양한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과수원의 모습과 유비적인 관련성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고원석, 2018; 최현준, 2012).

이 중에서 세 번째 해석방법인 “데라쉬”는 히브리어 동사 ‘다라쉬(דרש)’, 곧 ‘찾다’, ‘묻다’에서 파생되어, ‘탐구하다’, ‘조사하다’, ‘연구하다’라는 뜻을 갖는다. 성경에서도 이 단어는 하나님, 율법 등을 ‘연구’하고 ‘찾다’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예를 들어 에스라 7장 10절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의 ‘연구’(דרש), 이사야 34장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의 ‘찾다’(דרש)에 나타난다. 이처럼 유대 학자들은 성경의 풍부한 의미를 추출해내기 위해 성경의 텍스트로부터 철저히 조사하고 연구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제2 성전 시대에 쓰여진 역대하 13장 22절과 24장 27절에는 ‘주석’이라는 뜻으로 미드라쉬(מדרש)가 등장한다. 이후 랍비들은 성경을 깊게 연구하며 성경 속에 숨어있는 깊은 의미를 찾아내기 위해 다양한 문학기법들을 사용했고, 그러한 문학기법을 미드라쉬라 이름 지어 미드라쉬라는 문학작품을 만들어 내면서 그러한 해석의 모음집을 미드라쉬라고 불렀다(Kats & Schwartz, 2008, 21; Stemberger, 2008, 32).

정리하면, 미드라쉬는 성경에 대한 ‘주석, 해석’을 의미함과 동시에 랍비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자, 고대 후기에 작성된 랍비들의 ‘구체적인 해석의 결과’나 ‘성경 해석을 담은 작품들’을 의미한다. 미드라쉬는 문집이나 강론 모음집, 랍비 문학의 특정 장르, 공개적으로 전달되는 성경 주석과 설교, 그리고 성경의 특정 책에 대한 주석 행위 등을 포함하는 상당히 넓은 의미지평을 가지고 있다(Porton, 2005, 520; Skolnik & Berenbaum, 2007, 182).

미드라쉬는 원칙적으로 종교법에 의무를 지우는 할라카(Halakhic Midrash) 해석과 종교적으로 가르치고 이끌어 좋은 방향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악가

다(Aggadic Midrash) 해석으로 구별된다(Skolnik & Berenbaum, 2007). 형식적으로 명확하게 구별되는 것은 아니지만, 할라카 미드라쉬는 약가다에 비해 주석의 성격이, 아가다 미드라쉬는 할라카에 비해 설교적 성격이 두드러진다고 말할 수 있다(Strack & Stemberger, 1972, 228). 할라카 미드라쉬는 규범과 법에 관한 토론과 해석을 담아 성경에 없는 세부사항을 보충하여 성경의 윤리적 규정들을 더 구체적으로 분명하고 자세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또한 성경에 나타난 모순들을 조정하고, 성경에서 규정하지 않은 규칙들을 덧붙여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자 한다(김세권, 1999, 6; Stemberger, 2008, 35). 이러한 특성에 따라 주로 모세오경의 율법을 설명하고 주해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약가다 미드라쉬는 성경에 있어서 그 외의 자료들, 이를테면 신앙의 표준, 신앙인의 자세, 도덕적 교훈 등을 다루며,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의 해석도 포함한다. 약가다 미드라쉬는 할라카 미드라쉬에 비해 더 자유롭고, 말놀이 등이 한몫을 하여 미드라쉬 전통에 강하게 매여있으면서도 살아가는 현실의 영향에 열려있다. 약가다 미드라쉬는 성경을 주해만 하다가보다 성경 이야기를 재구연하면서 이야기의 틈새에 자신의 생각과 상상을 밀접하게 접목시켰다(Skolnik & Berenbaum, 2007; Stemberger, 2008, 35). 그래서 흥국평(2014)은 미드라쉬 약가다는 본문상의 틈새(gap)가 발생했을 때 정경 본문과 권위 있는 해석 전통이 모인 기억의 하이퍼텍스트 공간에서 랍비들이 벌이는 지적 유희의 산물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2. 미드라쉬의 간략한 역사

이스라엘 종교지도자들은 제2 성전시기 이후 민족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기에서 구하고 결속시킬 방안을 토라에서 찾으려 하였다. 성경에 등장하는 학자 에스라는 바로 그러한 대표적 인물이었고, 이후 유대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토라에 대한 연구와 이스라엘 백성들

을 위한 가르침을 이어나갔다(옥장흠, 2020, 114). 이러한 회당의 가르침은 신약성경에서도 예를 찾을 수 있는데, 어린 시절 예수는 성전에서 선생들에게 듣기도 하고 묻기도 했으며(눅 2:46), 구원 사역을 시작하며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기도 하였다(눅 4:16).

당시 유대인들은 다섯 살부터 백 살에 이르기까지 인생의 연령 단계에 따라 배워야 하는 분야를 정하여 가르쳤다. 유대교의 대표적인 교육 서적인 『탈무드』 중 ‘선조들의 어록’에는 유대인들이 각 연령에 따라 배우는 영역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그중 열다섯 살에는 “탈무드를 생겨나게 한 가르침”을 배웠다고 적혀 있다. 이들을 위한 교육은 구두로 진행되었고, 탈무드의 기초가 된 가르침에는 미드라쉬가 포함되어 있었다(Crenshaw, 2008, 18-22).

그러나 8세기 아랍 세계를 중심으로 무슬림의 영향력이 강해지면서 미드라쉬적 성서해석은 위기를 맞게 되었다. 아랍 사람들은 이슬람 경전인 코란과 다르게 접근하는 미드라쉬와 랍비 전승을 전적으로 부인했기 때문이다 (Skolnik & Berenbaum, 2007, 185). 무슬림의 영향을 받은 유대인들조차 성경만이 유일한 것이라 여기고 미드라쉬와 다른 유대 전승들을 배척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소수 랍비들은 미드라쉬의 해석지침을 보존하고 유지시키려고 노력하였다. 미드라쉬의 유산은 이러한 랍비들의 노력과 미드라쉬가 가진 독특한 문학 양식 덕분에 계속 유지되었고, 이렇게 지켜온 미드라쉬 모음집이 11세기에 들어 기독교가 퍼진 유럽에서 꽃을 피웠다. 특히 독일과 프랑스는 미드라쉬 연구의 중심지였다. 현재까지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완전한 필사본은 10-11세기에 쓰여진 것으로, 당시 유대인들은 그들이 모여 사는 중심 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미드라쉬 필사본들을 자신들의 도서관에 저장해두고 학자나 선생들만 읽을 수 있도록 하였다(Stemberger, 2008, 331-333).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던 도시 중 하나인 콘스탄티노플은 미드라쉬 주해가 뛰어난 도시로, 1512년 『미드라쉬 랍바』가 처음으로 인쇄된 곳이다. 특히, 아랍 지역 미드라쉬의 본 고장인 예멘은 집집마다 온 가족이 함께 미

드라쉬를 읽어 필사본이 많았고, 후기 미드라쉬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중세 유대인들은 고대의 미드라쉬 전승을 살리면서도 낮은 이야기들을 많이 보충하여 채웠다.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미드라쉬는 널리 알려져 더 깊이 연구되었고 중부 및 동부 유럽 출신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언어인 이디시어로도 번역하기에 이르렀다. 1382년에 방대한 미드라쉬 모음집이 이디시어로 기록되자, 오랫동안 학교 교육을 받지 못했던 여자와 평범한 유대교인들도 미드라쉬의 유산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5세기부터 장편 서사시들이 성행했고 16세기부터는 산문 문학들이 나오기 시작하여 18-19세기까지 미드라쉬의 출판은 끊이지 않았다. 유대인들의 전승은 시대에 따라 새로운 흐름이 등장하곤 했지만 미드라쉬는 그 어떤 상황에도 아랑곳함 없이 굳건한 위치를 고수했다(Stemberger, 2008, 339).

그러나 이러한 유대교의 미드라쉬가 그리스도교에 전해진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그리스도교는 유대교의 성서해석을 혹평하고 문자적인 이해에 지나지 않는다고 홀대해왔다. 유대교의 회당에 성경 외 다른 문헌들이 있음을 알고 있었지만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겨우 탈무드만이 유대교의 유일한 문헌인 것으로 인식할 뿐이었다. 또한 유대교도 유대의 주요 문헌을 철저하게 관리하였으며 타종교인들에게 자신들의 서적을 개방하지 않았다. 종교개혁 이후 18-19세기에 들어서 많은 문헌 모음집이 번역되기 시작하면서 중요한 미드라쉬들이 알려지기 시작했고, 그리스도교에서도 조금씩 미드라쉬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연구들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새로운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길을 제공받게 되었다.

3. 미드라쉬의 성서해석방법

유대 랍비들은 성경인 토라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거룩한 문서이며,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무엇이 있다고 믿었다. 각 문장, 각 낱말, 각 글자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숨겨져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단순히 읽기만 해서는 안 되고 탐구해야(다라쉬) 한다고 생각했다. 또 성경의 모든 내용 속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단순히 글의 뜻을 잘 생각하면서 차분하게 읽는 속독만 해서도 안 되고 해독해내야 한다고 믿었다(Kats & Schwartz, 2008, 25). 이처럼 성경을 향한 랍비들의 신념은 종이 나 두루마리에 인쇄되거나 기록된 검은 불꽃(문자)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검은 불꽃 사이의 흰 불꽃(여백)을 해석의 영역에 포함시켰다. 검은 불꽃은 적혀진 글자로 늘 고정되어 있지만 흰 불꽃은 변화하는 시간과 읽는 독자로 하여금 새로운 만남을 기대하게 하기 때문이다(고원석, 2018, 440-442; Pitzele, 2016, 39).

이러한 미드라쉬의 흰 불꽃에 대한 해석학적 관심은 “텍스트 사이의 간격 메우기(filling gaps)”에 해당한다(유윤종, 2004, 74). 성경에 충분한 설명이 제공되지 않았거나 명확하게 언급되지 않은 빈 공간을 창조적으로 채워나가는 것이다. 슈템베르거(2008, 35)는 하이네만(Heinemann, 1970)을 인용하며 성경의 깊은 의미를 드러내기 위한 미드라쉬의 해석학적 관점을 두 가지 소개한다. 하나는 역사 서술의 창조성이고 다른 하나는 언어적 창조성이다(Kats & Schwartz, 2008, 25-28).

1) 역사서술의 창조성

역사서술의 창조성이란 성경 이야기의 빈 공간들을 보충하고, 성경 인물들의 생활을 창조적으로 묘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일 년간 낭독하는 토라 강론집 「탄후마 미드라쉬」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집트에서 체휼한 모험과 연관하여 흥미로운 부분을 기록하고 있다(Stemberger, 2008).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시련이 닥치는 장면이다.

[5] ①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창 12:10) 이 장 처음에 무엇이라고 쓰

여었느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가라’라고 말씀하셨다.(창 12:1) 이 의인에게 시련을 주시어 그의 업적을 세상에 알리기 원하신 찬양 받으실 거룩한 분의 이름은 찬미 받으소서. 그때 세상에 기근이 들어 이스라엘 땅에도 기근이 들었다.

②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에게 말하였다. 보라, 기근이 이 땅을 휩쓰는구나. 이집트에 가서 사는 것이 나을 것 같으니 그곳으로 가자. 그곳에는 빵과 고기가 풍부하게 저장되었기 때문이다. 바로 그 시간에 그 둘은 떠났다.

③ 그들이 이집트의 대문에 이르러 나일강에 섰을 때, 아브라함은 나일강에 비친 사라의 모습을 동쪽에 뜨는 해처럼 쳐다보았다. 그래서 현인들은 사라를 모든 여성들과 비교하기 위해 사람과 원숭이를 비교한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여보, 나는 당신이 아름다운 여인임을 잘 알고 있소”(창 12:11)라고 말한 것이다.

④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말하였다. 이집트인들은 음탕함에 빠져 있어서, 그래서 “그들의 사지가 나귀의 것과 같고”(겔 23:20)라고 기록되어 있다. 내가 당신을 궤 속에 넣어 잠그겠으니 “이집트인들이 당신을 볼까”(창 12:12), 나는 두렵기 때문이오.

⑤ 그들이 그 작업을 끝냈을 때, 아브라함은 국경에 이르렀다. 세관 관리들이 몰려와서 그에게 “그 궤 속에 무엇이 있느냐?”고 물었다.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보리”라고 대답하였다. 그들은 “그것은 밀이다”라고 반문하였다.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그렇다면 밀에 대한 관세를 받아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그들은 또 “그것은 고추다”라고 말하였다.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고추에 대한 관세를 받아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그들은 또 “그것은 금덩어리들이다”라고 말하였다. 드디어 그들은 아브라함에게 강제로 궤를 열게 하니 동쪽에 떠오르는 태양 같은 것을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보통 사람이 그 여인을 그렇게 처리한다는 것은 안될 일이오”라고 말한 것은 “파라오의 대신들이 사라를 보고 파라오 앞

에서 그 여자를 칭찬하였다”(창 12:15)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⑥ 아브라함은 그것을 보고 울면서 찬양받으실 거룩한 분에게 기도를 드렸다. “세상의 주님, 저는 그런 믿음으로 당신을 신뢰하였습니다. 이제 저는 당신의 자비와 은총으로 제 희망이 무의미하게 되지 않게 하소서.”

⑦ 그리고 사라는 소리지르며 통곡하였다. 세상의 주님, 나는 아무것도 몰랐나이다. 아브라함이 저에게 당신께서 떠나라고 명령하셨다고 말했을 때, 나는 당신 말씀을 믿었나이다. 저는 지금 아버지, 어머니, 남편 없이 홀로 있나이다. 그런데 폭군이 와서 나를 농락하려 하니, 당신의 위대하신 이름과 당신 말씀에 대한 신뢰를 위해 답판을 지으소서.

⑧ 찬양받으실 거룩한 분이 말씀하셨다. 네 생애에 아무것도 너와 네 남편을 해치지 않을 것이다. 이는 “의인은 아무런 환난도 당하지 않지만, 악인은 불행으로 가득하게 된다”(잠 12:21)는 성경 구절을 뜻한다. 나는 파라오와 그의 집안에 본보기를 보일 것이다. 이는 “주님께서는 파라오와 그 집 안에 여러 가지 큰 재앙을 내리셨다”(창 12:17)”라고 쓰여있기 때문이다. (292-294)

창세기 12장 10-20절은 아브라함(아브람)과 그의 아내 사라(사래)가 기근으로 인해 이집트 땅으로 내려가면서 겪는 일화를 기록하고 있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와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 사라의 아름다움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의 시샘과 위협을 느낀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사람들에게 소개한다. 사라의 아름다움에 대한 소문은 퍼지고 퍼져 급기야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도 전해지게 되고 파라오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궁으로 초대하여 극진하게 대접하며 아브라함에게 많은 가축과 노비를 선물로 주기까지 한다 -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파라오는 사라를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 그의 오라비 아브라함을 극진히 대접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렇게 손님을 극진히 대접한 파라오의 궁에 여호와께서는 큰 재앙을 내리신다. 성경 본문 상의 내용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처사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사실 모든 일의 근원은 아브라함의 기우에서 비롯된 것이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의 아름다움으로 인해 자신의 목숨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걱정하였기 때문에 아내 사라를 자신의 동생이라고 사람들에게 소개한 것이 문제의 발단이였다. 이집트 파라오도 아브라함의 동생의 아름다움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를 초대하여 극진히 대접한 것이다. 설령 파라오가 사라를 아내로 맞이하려 했다 하더라도 파라오의 행동에 있어서는 그 어떤 불의한 요소나 폭력 행위는 나타나지 않는다. 본문 상에서도 파라오는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라고 자신의 잘못이 아니었음을 아브라함에게 항변하고 있다. 파라오와 이집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재앙은 부당한 처사로 여겨지며, 실제 모든 일의 발단은 아브라함의 걱정과 근심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사람들은 성경을 향해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왜 강한 믿음의 소유자 아브라함이 그토록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었던 것일까? 아브라함은 아내를 이용해서 자신의 안위를 도모하려 했던 것일까? 어떤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파라오의 궁에 큰 재앙을 내리셨던 것일까? 본문 속에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그 무엇인가가 있는 것이 아닐까? 바로 이러한 물음과 궁금증에 답을 시도하는 것이 미드라쉬의 역할이다. 먼저 위 미드라쉬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사라를 사랑하고 있는지, 어떤 존재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동쪽에 떠오르는 태양”에 비유한다. 아브라함에게 사라는 한없이 고귀하고 찬란한 존재고 어떻게든지 보호하고픈 존재다. 그런데 이집트라는 나라는 당시 탐욕과 음탕함이 가득한 곳이기에 아브라함은 사라를 지키기 위해 그녀를 꾀쪽에 넣어 이집트로 향한다. 그런데 우려했던 바대로 이집트 사람들의 탐욕스러움이 드러난다. 국경을 지키던 관원들은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아브라함의 꾀쪽에 들어있는 것을 보리에서 밀로, 밀에서 고추로, 고추에서 황금으로 둔갑시키며 무거운 관세를 부과

려고 한다. 그런데 그만 그 꺾은 안에서 “동쪽에 떠오르는 태양”과 같은 존재(사라)를 보고 그녀를 보통 사람이 범접할 수 없는 존재로 인정해 버린다. 미드라쉬는 사라는 어떻게 파라오의 궁에 알려졌고 궁으로 가게 되었는지를 이 과정을 통해서 설명해준다.

이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사라의 안전을 목격하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지속적으로 고백한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리라는 신뢰의 기도가 느껴지고 있다. 반면 사라는 앞으로 자신에게 닥칠 위기감을 느끼며 절실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 미드라쉬는 왜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궁에 재앙을 통해 개입하시게 되었는지도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개인의 잘못으로 인한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같은 의인을 어떻게 지키고 돌보시는지 본보기를 드러내신 사안이었다. 미드라쉬는 ⑥,⑦에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기도를 삽입하여 그들이 느꼈던 생생한 심정과 갈급한 상황을 드러내고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역동적으로 응답하시는 분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미드라쉬는 본문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궁금증과 질문에 대해 역사/이야기를 창조적으로 서술해 나감으로써 본문에서 드러나는 모순점을 해소하고, 서로 상충하는 내용을 조화롭게 만든다. 미드라쉬는 그 외에도 이러한 이야기 속에서 성경을 역사의 패러다임으로 해석하여 조상들의 행동이 후손들의 행동을 이야기하는 징조로 보기도 하고, 성경의 이야기를 이용하여 현재 돌아가는 정치문제나 이슈를 논하기도 하며 현재 시점에 중요한 관점을 성경 속에서 찾아낼 수 있도록 하였다. 마치 ⑥의 이집트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꺾을 강제로 열게 하고 부당한 세를 취득하려고 하는 모습은 자신의 이득만을 취하기 위해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악한 모습을 엿보게 한다.

2) 언어적 창조성

언어적 창조성은 문장의 언어에 관심을 갖고 철자나 낱말을 살피는 방식

이다. 그러나 단순히 언어만을 살핀다기보다 다양한 각도로 상상하며 숨겨진 것을 찾아내고자 하는 것이다. 『탄후마 미드라쉬』에 나타난 창세기 12장 1절의 부분에는 이러한 예가 등장한다(Stemberger, 2008).

“떠나거라! 떠나거라!”(קָם-קָם - 레크 레카)란 무엇을 뜻할까? ‘레’의 ‘라 메드(למ)’는 30, ‘카’의 ‘카프(ק)’는 20을 뜻한다. 그래서 ‘레크 레카’의 수치는 100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가 백살이 될 때에 위엄이 있는 아들을 낳을 것을 암시하심을 말한다. 이를 두고 “아브라함에 아들이삭이 태어났을 때, 그의 나이는 백 세 였다”(창 21:5)라고 쓰여 있는 것과 같다. (288)

히브리어 알파벳은 그 순서를 따라 수(數)를 의미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히브리어 첫째 알파벳 ‘알렐’은 1을, 둘째 알파벳 ‘베트’는 2를 뜻한다. 열한 번째 알파벳 ‘카프’는 20을, 열두 번째 알파벳 ‘라메드’는 30을 뜻한다. 미드라쉬는 언어적 유희를 이용하여, 즉 히브리어 자음이 가지고 있는 수의 의미를 통해 아브라함의 삶을 유추하고자 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나라”는 사명은 결국 100세에 이삭이란 자식을 선물로 받는 은혜와 상보적 관계에 있다는 것을 바라보게 한다.

결국 미드라쉬는 (그것이 철저하게 논리적이지 않더라도) 창조적인 노력을 통해 성경 본문을 꼼꼼히 관찰하고자 하는 태도가 그 중심에 자리잡고 있다. 랍비들은 성경에서 발견되는 빈틈과 여백에 더 크고 풍성한 의미가 숨겨져 있다는 희망과 확신을 가지고 본문의 언어를 자유롭게 살핀다. 한 낱말이 가진 다른 뜻이 있는지, 요약된 것은 아닌지, 또는 그 어원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 언어적으로 연구하였다. 단어와 비슷한 발음을 찾아내어 언어의 유희를 이끌어내기도 한다.

정리하자면, 이상의 창조적인 태도와 방법으로 미드라쉬는 검은 불꽃 사이의 흰 불꽃을 타오르게 하며, 간격(gaps)을 메우고자 한다. 텍스트의 간

격을 매꾸는 것은 성경 텍스트와 독자의 간격도 매꾸는 것이다(유윤종, 2004, 75). 먼 과거의 이야기가 아닌 현재의 삶을 통해 매워지는 텍스트의 간격으로 독자는 성경을 자신의 삶으로 해석하고 이해하게 된다.

III. 미드라쉬의 성서교수학적 의미와 적용

유대교 랍비들은 성경을 대할 때, 어떤 생각과 규칙을 갖고 해석하고자 하였다. 그것은 단순히 임의적이고 주관적인 생각이라기보다 성경에 대한 그들의 신념이고 태도였다. 랍비들은 이러한 지침을 통해 성경을 읽고 해석하였으며, 성경을 해석한 미드라쉬를 전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석의 지침들도 함께 전수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지침을 통해 랍비들은 성경이 가진 거룩성과 살아있는 말씀으로서의 현재성을 더욱 살아나게 하였다.

이러한 미드라쉬가 가진 독특성은 단순히 성서주석 또는 성서해석의 방법을 넘어 성경을 가르치는 성서교수학적 태도로도 큰 의미를 갖는다. 본 장에서는 미드라쉬의 성서해석의 태도와 방식이 성서교수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별히 150년경 활동했던 랍비 메이어(Rabbi Meir, 139-163)와 14세기 초 활동했던 랍비 게르손(Levi ben Gershon, 1288-1344)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전해 내려오고 있는 성서해석을 위한 <랍비 메이어와 게르손의 열 세 가지 지침>(Katz & Schwartz, 2008, 392-395)에서 성서교수학적 의미를 발견하고, 미드라쉬적 성서해석을 적용한 비블리오드라마 성서교육을 소개하고자 한다.

1. 미드라쉬의 해석 지침에 나타난 교육적 의미

랍비들의 해석지침은 랍비 시대 초기에 이미 세워져 있었기에 역사성을 증명하기는 어렵지만, 『시프라』, 『토세프타』와 같은 미드라쉬의 첫 장

에 진술되어 있으며 랍비들의 가르침을 통해 전승되었었다. 로마 제국에 대한 유대인의 저항운동인 바르 코크바 반란(132-135년) 이전에 활동했던 랍비들 중 가장 저명한 랍비 이슈마엘(Rabbi Jischmael)도 항상 “토라는 열세 원칙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가르쳤다(Kats & Schwartz, 2008, 392; Strack & Stemberger, 1982, 30-31; 괄호의 숫자는 열세 원칙의 숫자).

1) 들음과 배움의 자세를 요구하는 성서

“먼저 배운다. 설교하려고 메시지만 찾지 말고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1)

미드라쉬는 근본적으로 성경을 귀기울임의 대상, 배움의 대상으로 규정한다. 성경은 누군가를 가르치고 누군가에게 전달해야 할 내용 이전에 먼저 ‘내’가 성경의 말씀, 음성을 귀기울여 듣고 진정한 배움(학습)에 이르고자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스승과 같은 존재다. 성서교육에 있어서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 무엇을 전달해야 할 것인지, 늘 가르치는 입장에서 성경을 대하는 경우가 많다. 미드라쉬적 관점은 성경 앞에서 모든 사람은 - 교사든 학생이든 - 먼저 귀기울여 “듣는 마음(왕상3:9)”의 자세를 갖춰야 한다고 말한다.

2) 탐구의 자세

성경을 공부하고 질문하고 탐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1); “단지 읽지 않고 연구해야 한다”(2); “열쇠는 무엇을 읽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읽느냐이다.”(11)

미드라쉬는 깊이 있는 탐구의 자세를 요구한다. 단순히 본문을 표면적으

로만 읽는 행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본문을 향해 ‘공부’하는 자세, ‘질문’하는 자세, ‘탐구’하는 자세를 갖도록 요구한다. 바로 미드라쉬가 가지고 있는 본래적 의미(다라쉬)이기도 하다. 이러한 탐구의 태도와 관련하여 미드라쉬는 성경 탐구(읽기)의 특별한 자세(‘어떻게’)를 요청한다. 표면적 의미를 뚫고 들어가 성경의 깊이 있는 의미를 발견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려는 것이다. 성서교육은 성경의 내용을 수렴시키고 지식을 쌓는 행위가 아니라 성경을 향해 나의 의문과 실존적 고민을 던지고 그 해답을 찾아가는 ‘몰입’(flow)의 자세를 요구한다(Csikszentmihalyi, 2005).

3) 여백을 통한 탐구

“성경은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것보다 적게 말하는 경우가 많다”(6); “공백을 메꾸라. 빠져있는 것이 무엇인지 질문하고 ... 앞뒤 이야기를 살피고 개인 경험을 살려 읽어라. 그 이야기에 살을 붙여보라.”(7)

미드라쉬가 제시하는 탐구의 특별한 자세는 ‘여백’을 통한 말씀 탐구의 자세이다. 미드라쉬는 성경이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것보다 적게” 말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게 한다. 감춰진 말씀, 아직 충분히 제시되지 않은 말씀은 본문 사이의 공백, 여백에 담겨 있다. 성경을 탐구하는 자는 이 여백에 주목하여 여백을 메꾸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여백을 바르게 메꾸기 위해서는 두 가지 태도가 요구된다. 하나는 본문의 문맥(이야기)을 제대로 살피는 것이고, 둘째는 본문의 빈 여백을 개인 경험을 살려서 읽어나가며 살을 붙이는 것이다. 이 두 가지 탐구 태도가 균형을 이루며 진행될 때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했던 그 말씀이 충분히 드러나게 된다.

4) 상호존중과 상호소통의 중요성

“우리의 전통은 서로 얽혀있다. 나만의 해석이 아닌 다른 이의 해석을 보아야 한다. 다른 이들의 생각도 존중해야 한다는 말이다”(9); 바른 해답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다. 두 사람이 한 구절을 달리 읽을 수 있다. 시간이 지나다보면 내 해석이 달라지는 경우도 경험한다.”(10)

성경은 유구한 역사과정을 거쳐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승된 말씀이다. 성경은 오랜 역사과정 속에서 수많은 상황과 사건과 대면하여 그 상황과 사건을 향해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들려주며 역사를 이끌어 온 구속의 실체이기도 하다. 그래서 유대 랍비들은 모든 성경 구절에는 여러 가지 뜻이 담겨 있어서 해석들 역시 여러 가지일 수 있다고 여겼다. 두 사람이 한 구절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으며, 나의 해석도 또 달라질 수 있음을 말한다. 이러한 해석은 나만이 정답이고, 나의 생각만이 옳은 것이 아니라 다양한 해석들과 시도들로 더욱 풍성한 이해를 하게 한다고 본 것이다. 미드라쉬를 읽다보면 랍비들은 자신들의 미드라쉬를 기존에 내려오는 미드라쉬 전통에 추가하고 더하여 새로운 해석을 한다. 이러한 그들의 사상은 전통에 갇혀 머물러있는 것이 아니라 창의적인 사고를 통해 새로운 해석과 시도들로 교육적인 효과를 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 보여진다.

따라서 미드라쉬는 성경이 다양한 역사적 상황과 처지에서 다양한 의미와 해석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성경의 전통은 서로 얽혀 있다고 말한다. 성경 구절에는 여러 가지 뜻이 담겨 있어서 해석 역시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리고 그 전통을 하나의 의미로 고정시키거나 바른 해답이라고 고집하는 것을 금지시킨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의견을 존중할 것을 당부한다. 그런 점에서 미드라쉬가 성경을 해석하고 탐구하는 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탐구자들의 상호존중과 상호소통이다. 나 한 사람의 이해 능력으로는 성경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다. 나의 생각만 옳다 주장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해석들과 시도들을 통하여 더 풍성한 이해를 가능케 해야 하는 것이다. 다양한 관점과 상황 속에 있는 탐구자들이 성경의 말씀 앞에

서 느끼고 체험하는 이해들은 모두 소중하고 가치있는 것이며 그 이해와 해석이 모아지고 확장됨으로써 진정한 말씀의 ‘이미지평’에 이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Gadamer, 2012, 186-187).

5) 내게 도전해 오는 말씀

“열쇠는 무엇을 읽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읽느냐이다. 분노, 도전, 질문이 미드라쉬 속에서 용인된다. 전통이 그렇다. 물론 애정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11); “토라가 도전하게 하라. 우리가 믿고 있는 바를 떠받쳐 줄 버팀목으로만 성경을 사용할 수는 없다. 우리가 질문하듯 성경도 우리에게 질문하고 도전하게 해야한다”(12); “토라를 오늘과 연결시키라. 성경 속에서 깊이 묵상하고 밖으로 나와 우리의 삶과 이 세계 속에서는 무엇을 말하는지 생각해보아야 한다.”(13)

미드라쉬가 궁극적으로 성경을 탐구하는 목적이 마지막 원칙에 분명히 드러난다.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는 근본 목적은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 그 의미를 파악하고, 하나님을 알아 인간이 마치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탐구하는 이유는 우리의 현재 모습을 향해 도전해 오는 말씀과 대면하기 위해서다. 우리가 성경을 향해 질문하듯 성경이 우리를 향해 “질문하고 도전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미드라쉬는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하여금 나를 읽도록 하자는 것이다(Weber, 2006).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토라를 오늘과 연결시키는 훈련을 해야 하며, 성경을 묵상함과 동시에 우리의 삶과 세계를 향한 의미의 적용점을 살펴야 하는 것이다.

2. 미드라쉬의 성서교수학적 적용: 비블리오드라마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난 핏젤(2016)은 유대의 성서해석 전통인 미드라쉬적 해석원칙을 현대적으로 재해석 및 적용하여 ‘비블리오드라마’ 성서교육을 펼치고 있다. 특히 그는 2000년 9월 독일의 세계베르크(Segeberg)에서 열린 국제 비블리오드라마대회에서 “미드라쉬로서 비블리오드라마”란 발표를 통해서 미드라쉬 전통을 현대 성서교육에 적합한 자신만의 비블리오드라마 이론을 소개하였다. 핏젤은 심리극의 영향을 크게 받은 당시 유럽의 비블리오드라마(‘bibliodrama’)와 차별화된 성서 본문 중심의 비블리오드라마(‘Bibliodrama’) 이론을 펼치고 있다. 핏젤은 신앙이 끊임없이 위협받고 무시되고 있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성서교육의 실마리가 바로 미드라쉬를 통해 현실화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원석, 2020). 성서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비블리오드라마는 미드라쉬의 성경에 대한 태도와 여러 가지 면에서 공유점을 가지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랍비들의 성서해석 지침과 비블리오드라마의 원칙을 비교하며 그 부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원석, 2018, 432-451; 2020, 15-39).

1) 드라마적 탐구로서 비블리오드라마

비블리오드라마는 성경을 탐구하되 극적 방식으로, 즉 극화된 형태로 탐구한다. 비블리오드라마는 성경본문을 내용으로 삼아 일종의 즉흥적인 역할극 또는 대화형식으로 구현하는 것이다. 하지만 비블리오드라마는 성경 본문의 내용전달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성경 본문을 극적 방식으로 재연하는 과정에서 성경의 이야기 속으로 자신을 몰입시킴으로써 성경을 입체적으로 탐구하게 한다. 성경에 등장하거나 추측할 수 있는 존재들의 목소리와 행동을 모든 감각과 감성을 가지고 표현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 본문을 자발적이면서도 자유롭게 연기하는 비블리오드라마 과정을 통해 성경을 읽는 것을 넘어 성경의 사건 속으로 자신을 투영시킴으로써 미드라쉬가 목표로 삼았던 깊이 있는 탐구와 고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원석, 2018).

2) 공동체적 상호작용 과정으로서 비블리오드라마

비블리오드라마는 작게는 5-7명, 많게는 30명 이상의 집단으로 이루어지는 공동체적 학습행위다. 비블리오드라마는 어느 한 사람의 주도적인 생각과 가르침을 통해서 진행되기보다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각각의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생각과 느낌을 중요시한다는 점에서 미드라쉬의 상호소통의 원칙을 공유한다. 구성원들은 누구나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으며, 전체 공동체는 각각의 의견과 표현을 수용하면서 그 의견과 표현에 역동적으로 반응한다. 이 과정에서 개인과 공동체 사이에 역동적인 상호소통과 상호작용이 일어난다. 비블리오드라마는 철저히 공동체적 상호존중과 상호소통 속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지식과 체험, 공동체적 배움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다. 공동체적 상호작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비블리오드라마는 구성원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지식과 이해, 서로 다른 입장과 견해가 오히려 성경에 대한 새로운 체험과 풍성한 이해에 이르게 하는 창의적인 동력이 된다고 믿고 있다(고원석, 2020, 17).

3) 흰 불꽃을 통한 검은 불꽃의 해석으로서 비블리오드라마

미드라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탁월한 해석학적 관점은 여백(공백)에 대한 주목이다. 비블리오드라마는 이 여백에 대한 해석학적 중요성을 교수학적으로 수용하여 비블리오드라마의 핵심적인 관점으로 활용한다. 미드라쉬가 발견했듯이 성경은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것을 가능하면 간결하고 정돈된 형태로 우리에게 전해준다. 이러한 정돈된 형태의 본문을 우리는 다시 역동적이고 열정의 말씀으로 역번역해야 할 과제가 있다. 바로 그 과제를 위해 비블리오드라마는 본문의 검은 불꽃(문자) 이외에 흰 불꽃(여백)에 주목하려고 한다. 이 흰 불꽃에 대한 관심 역시 유대 성서해석 전통에서 유래한 것이다. 성경의 흰 여백에는 문자가 담지 못하는 인물들의 숨겨진 목소리, 감정, 소망, 분노와 눈물 등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비블리오드라마는 흰 불꽃을 통해 검은 불꽃을 해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비블리오

드라마는 성경의 이야기가 남겨 놓은 틈과 공간을 발견하고, 그것을 채울 방법을 상상하는 독자의 마음에서 시작한다”(Pitzele, 2016, 41-42). 비블리오드라마는 독자의 참여를 통해 그 여백, 빈 공간을 채워나가는 행위이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주관적 행위가 아닌 본문과의 원활한 맥락을 연결하고자 하기에 검은 불꽃의 언어적, 상황적 맥락에 맞추어져야 한다.

4) 나를 향한 말씀에 귀 기울이는 비블리오드라마

비블리오드라마는 텍스트(성경)와 비블리오드라마 참여자들의 개인사를 서로 대면하게 하여 말씀과 참여자 자신의 상호융합을 추구한다. 성경 본문에 거리를 두고 비판적으로 관찰하는 해석방식과 달리 비블리오드라마는 참여자가 자신의 입장과 태도를 가지고 성경의 세계와 장면 속으로 뛰어들으로써 성경의 사건 속에 위치한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한다. 텍스트의 사건이 내 삶의 사건이 되고, 주어진 문제상황에서 텍스트의 인물처럼 고민하며 그 문제에 인격적인 응답을 하게 하는 것이 비블리오드라마의 주된 목적이다. 특별히 비블리오드라마는 비블리오드라마 과정 중에 일어나는 체험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비블리오드라마는 연기 행위를 통해 어떤 완성된 결과물(작품)을 도출해내려고 하지 않는다. 기존 연극이나 성극이 완성된 결과물을 청중 앞에서 재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비블리오드라마는 성경 본문을 바탕으로 작은 역할극(연기)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본문이 내게 들려주는 새로운 메시지에 귀 기울이고자 한다. 구성원들이 보여주는 대화와 연기에 주목하며 성경 본문을 새롭게 체험하고자 한다. 비블리오드라마 안에서 성경 말씀은 “인간 영혼의 거울이자 창”(Pitzele, 2016)이 된다. 학습자들은 비블리오드라마를 통해 성경의 말씀을 오늘의 말씀으로, 나를 위한 말씀으로 사건화한다.

5) 정체성 형성의 과정으로서 비블리오드라마

비블리오드라마는 성경의 문제가 내 삶을, 내 삶의 이야기가 성경의 의

미를 개방시키고 새롭게 바라보도록 한다. 즉, 비블리오드라마는 성경과 참여자의 대면을 통해 서로 인격적인 만남과 성찰을 일으킴으로써 서로를 새로운 모습으로 발견하는 기회(상호개방)를 제공한다. 그리하여 비블리오드라마는 성경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고 인식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해와 인식을 바탕으로 참여자의 삶에 도전하고 새로운 관점으로 참여자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함으로써 새로운 정체성 형성을 도모한다. 성경을 읽는 근본적인 이유는 성경의 지식을 수용하고 내 안에 그것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통해 나(정체성)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새로운 정체성 형성에 이르는 것이다. 비블리오드라마는 구체적인 경험과 문제 상황 속에 있는 독자와 관련된 성경의 의미를 묻고자 한다. 성경의 진정한 의미란 결국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찾는 데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비블리오드라마는 성경에 나타나는 극적 문제 상황에 주목하고 그 문제를 나의 문제로 극화함으로써 성경을 사건 속에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궁극적으로 자기정체성의 새로운 형성을 추구한다(Aldebert, 2001, 24).

IV. 나가는 말

본 연구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성서교육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기 위해 유대 랍비 전통의 성서해석방법 중 하나인 미드라쉬를 살펴보았다. 미드라쉬는 성경 본문이 설명하고 있지 않은 것을 우화적으로 설명하고 밝혀내려고 하며, 성경 본문의 빈 공간을 채워나가도록 돕는다. 아울러 미드라쉬의 해석지침들은 성서교수학적 의미를 담고 있으며, 성경을 대하는 태도의 전환을 요구한다. 미드라쉬는 단순히 성경을 잘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을 걸어오는지, 성경이 우리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까지 나아간다. 단순히 성경을 더 알아가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가르친다. 또한 성경을 가르치는 것뿐 아니라 먼저 성경이 말하는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자세와 탐구의 자세로 나아가게 하며,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소통하고 그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 그리고 이러한 미드라쉬의 해석학적 관점은 비블리오드라마의 성서교수학적 이론을 통해 구체화됨으로써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성경의 문자 너머에 있는 역동적이고 입체적인 의미로 인도하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

구약성경의 근간을 잡고 있는 유대교의 다양한 학문과 서적 중 미드라쉬는 가장 적은 부분으로만 우리에게 알려져 있어서 어렵פות한 설명과 잘못된 이해로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할 수도 있다. 따라서 언제나 끊임없는 비판적 태도로 과연 우리가 성경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자유롭게 헤엄치고 있는 것인지 돌아보며 점검해보아야 할 것이다. 오늘도 성경은 우리 안에서 살아 숨 쉬며 우리에게 말을 걸어온다. 그 응답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성경과 관련되지 않은 삶, 성경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삶을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은가? 오늘도 나의 삶에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 고민하며 노력하는 이들에게 본 연구가 유익한 기여가 되기를 바란다.

참 고 문 헌

- 고용수 (2000). 기독교교육의 새 패러다임. **기독교교육논총**, 6, 11-49.
- [Koh, Y.-S. (2000). A new paradigm of Christian education.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6, 11-49.]
- 고원석 외(2013). **기독교교육개론**.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연구원, 276-310.
- [Koh, W. S. (eds.) *Introduction to Christian education*. Seoul: PUTS Christian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276-310.]
- 고원석 (2018). **현대 기독교교육 방법론**.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 [Koh, W. S. (2018). *Methodologies of contemporary Christian education*. Seoul: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Press.]
- 김현희 외 (2020). **비블리오드라마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 [Kim, H.-H. etc. (2020). *Theory and practice of bibliodrama*. Seoul: Hakjisa.]
- 김도일 외, (2014). **미래세대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기독교교육**. 서울: 장신대 기독교교육연구원.
- [Kim, D. I. (eds.). (2014). *Christian education empowering the next generation*. Seoul: PUTS Christian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 김세권 (1999). 미드라쉬의 해석원칙과 수사법. **성서학연구원심포지움**, 20, 1-12.
- [Kim, S. K. (1999). Hermeneutics and rhetoric of midrash. *Journal of the Institute of Biblical Studies*, 20, 1-12.]
- 김영래 (2019). 히브리적 사고와 기독교교육: 히브리적 사고에 기초한 성경 스토리텔링. **신학과 세계**, 96, 157-182.
- [Kim, Y. L. (2019). Hebrew thinking and Christian education : Bible storytelling based upon hebrew thinking. *Theology and World*, 96, 157-182.]
- 김정준 (2018). 제4차 산업혁명과 교육목회의 새 전망. **기독교교육논총**, 55, 47-88.
- [Kim, J. J. (2018).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new perspective to

educational pastoral care.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55, 47-88.]

박상진 (2009). 한국 교회교육 위기 극복을 위한 기독교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기독교교육논총**, 20, 53-83.

[Park, S. J. (2009). A new paradigm of Christian education for solving the problem of the crisis of church education in korea.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20, 53-84.]

옥장흠 (2020). 유대교 탈무드 제라임(Zeraim)의 기독교교육 적용방안에 대한 연구. **기독교교육논총**, 64, 109-144.

[Ok, J. H. (2020). Study on the application of Christian education by zeraim, jewish talmud.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64, 109-144.]

유윤종 (2004). 유대교의 성서 해석학과 공시적 방법론과의 관계. **한국기독교신학논총**, 32(1), 69-94.

[Yoo, Y. J. (2004). Jewish biblical interpretation and its connection with synchronic approaches. *Korean Journal of Christian Studies*, 32(1), 69-94.]

이민규 (2021). 고대 유대전통의 성서해석과 오늘날 신약성서 해석의 과제 1. **신약연구**, 20(1), 7-38.

[Lee, M. K. (2021). Interpretation of the scripture in the ancient jewish tradition and tasks of today's interpretation of new testament 1. *Korean Evangelical New Testament Studies*, 20(1), 7-38.]

이주아 (2021). 한국 교회 성평등을 위한 내재적 교육과정 분석과 여성주의 기독교교육방안 모색. **기독교교육정보**, 68, 129-158.

[Lee, J. A. (2021). Analyzing the hidden curriculum for gender equality in Korean churches and searching for feminist Christian education method. *Christian Education & Information*, 68, 129-158.]

임창호 (2018).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독교교육 방향성 재고. **기독교교육논총**, 56, 11-44.

[Lim, C. H. (2018). Rethinking the direction of Christian education in the 4th

- industrial revolution era.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56, 11-44.]
- 조철현 (2015). 교회학교 교사상의 패러다임 전환. **기독교교육논총**, 43, 261-291.
- [Cho, C. H. (2015). A paradigm shift of the image of church school teachers.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43, 261-291.]
- 최현준 (2012). 페샤트, 레메즈, 데라쉬, 소드. **성서마당**, 303(가을), 82-89.
- [Choi, H. J. (2012). Peshat, remez, derash and sod. *Bible Garden*, 303(fall), 82-89.]
- 황헌영 (2019). 통합적 기독교상담모형으로서 비블리오드라마. **신학과 실천**, 67, 319-345.
- [Whang, H. Y. (2019). Bibliodrama as an integrative modality of Christian counseling. *Theology and Praxis*, 67, 319-345.]
- 홍국평 (2014). 미드라쉬 악가다. **신학논단**, 78, 289-321.
- [Hong, K. P. (2014). Midrash aggadah. *Theological Forum*, 78, 289-321.]
- Aldebert, H. (2001). Spielend Gott kennenlernen. *Bibliodrama in religionspädagogischer perspektive*. Hamburg: EB-Verlag.
- Crenshaw, J. L. (2008). **고대 이스라엘의 교육**. 박영식 역. 서울: 성서와 함께. (원저 1998 출판)
- [Crenshaw, J. L. (2008). *Education in ancient Israel* (Park, Y. S. Trans.). Seoul: Living With Scripture Publishers.(original work published 1998).]
- Csikszentmihalyi, M. (2005). **몰입**. 최인수 역. 서울: 한울림. (원저 1990 출판)
- [Csikszentmihalyi, M. (2005). *Flow* (Choi, I.-S. Trans.). Seoul: Hanulim. (Original work published 1990).]
- Gadamer, H. G. (2012). **진리와 방법2**. 임흥배 역. 파주: 문학동네. (원저 1960 출판)
- [Gadamer, H. G. (2012). *Wahrheit und methode2* (Im, H.-B. Trans.). Paju: Munhakdongnae.(original work published 1960).]
- Gillis, M. (2008). Midrash and education: reframing the question. *Studies in Jewish Education*, 13, 245-278.

- Heinemann, I. (1970). *Darkhe ha-aggada*, Jerusalem.
- Katz, M. & Schwartz, G. (2008). **모세오경 미드라쉬의 랍비들의 설교**. 이환진 역. 경기: 한국기독교연구원. (원저 2002 출판)
- [Katz, M. & Schwartz, G. (2008). *Searching for meaning in midrash* (Lee, W. J. Trans.). Gyeonggi: Korean Institute of the Christian Studies.(original work published 2002).]
- Kaufmann, H. B. (1969). Muss die bibel im mittelpunkt des religionsunterrichts stehen?. Esser, W. Hrg. *Die religionspädagogische grundfrage nach Gott*. Freiburg: Herder, 133-140.
- Neusner, J. (1987). *What is midrash?*. Philadelphia: Fortress Press.
- Neusner, J (1990). *A midrash reader*. Minneapolis: Fortress Press.
- Pitzele, P. (2016). **비블리오드라마로의 초대**. 고원석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원저 1998 출판)
- [Pitzele, P. (2016). *Scripture windows towards a practice of bibliodrama* (Koh, W. S. Trans.). Seoul: Presbyterian Church Korea Publishing House. (Original work published 1998).]
- Porton, G. (2005). Midrash, definitions of. In Neusner, J., Alan J. & Peck, A. (Eds.). *Encyclopedia of Midrash* (pp.520-534). Leiden: Brill,
- Sigel, D. (2010). A model for teaching midrash in the primary school: Forming understandings of rabbinic interpretation of scripture. *British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32(1), 63-76.
- Skolnik, F. & Berenbaum M. (2007). *Midrash, Encyclopaedia Judaica. Vol. 14*, 182-185.
- Strack, L. & Sternberger, G. (1982). *Einleitung in talmud und midrasch*. Munchen: C.H.Beck.
- Stemberger, G. (2008). **미드라쉬 입문**. 이수민 역. 서울: 바오로딸. (원저 1989 출판)
- [Stemberger, G. (2008). *Midrasch: vom umgang der rabbiene mit der bibel*

(Lee, S. M. Trans.). Seoul: Pauline. (Original work published 1989).]

Weber, H. R. (2006). **성서, 나를 읽는 책**. 연구홍 역.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Weber, H. R. (2006). *Bible that reads me* (Yeon, K.-H. Trans.). Seoul: Jeyoung.]

Abstract

Biblical Didactical Implications and Applications of Midrash

In Hye Kim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Won Seok Koh

Professor,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a new paradigm for Bible didactics in the context of the contemporary times and it turns its gaze to the midrash, the old tradition of Hebrew Bible interpretation. In order for the current Bible study to be meaningful and effective in today's situation, it is an effort to connect the Bible and us well, more than educational contents or materials. The word "midrash" itself means "textual interpretation", or "study", derived from the root verb darash, which means "to seek," "to seek with care," "to enquire," "to require" forms of which appear frequently in the Hebrew Bible. Midrash means an exegesis and interpretation of the Hebrew Bible (Torah) as well as a group of works that are the result of specific interpretations of the rabbis. This rabbinical tradition provides specific interpretative guidelines dealing with the Bible. These interpretive guidelines were passed down and formed an attitude of interpreting the Bible that is still relevant today. The rabbinical interpretative guidelines in midrash lead to the discovery of the following biblical didactical meanings. First, the Bible requires an attitude of listening and learning. Second, an attitude of inquiry is needed. Third, an exploration through the empty space is essential. Fourth, it leads us t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mutual respect and communication. Fifth, through the Words that challenge me, the meaning of biblical teaching

is discovered. These interpretation guidelines have much in common with Bibliodrama, which applies midrash to the didactic of Bible. Bibliodrama is a dramatic inquiry, where the effect of in-depth inquiry and consideration that midrash aimed at can be expected. In addition, bibliodrama is a process of communal interaction that leads to a new experience and a richer understanding of the Bible through different positions and viewpoints. Exploring the “white fire” of the Bible, we listen to what God says to us, which causes us to change and form an identity. The biblical didactical meaning found in midrash’s interpretation guidelines and the biblical didactical application of midrash through the bibliodrama can be presented as a new alternative to Christian education for the past, the present and the future. This will be able to present a new paradigm for biblical didactics with the word of God living and working in the present, not the Bible of the past, which is far from our present life.

《 **Keywords** 》

Midrash, Bible Study, New Paradigm, Bibliodrama, Christian Education

- 투고접수일 : 2021년 8월 27일
- 심사완료일 : 2021년 9월 29일
- 게재확정일 : 2021년 9월 29일